

# 세계 주요 타이어업체 동향



## 1. 09년 1/4분기 판매 실적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타이어 수요가 감소하면서 09년 1~3월간 세계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자동차의 저조한 판매에 따라 신차장착용 타이어의 판매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운전자들이 타이어 교체시기를 미루어 교체용타이어 부문

도 감소를 보였다. 한편, 경기 침체에 따른 운전자들의 중저가 제품 선호 추세와 함께 고가 브랜드 제품의 주요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지역의 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프리미엄 타이어 브랜드 업체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일부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은 판매 성장을 기록하였다.

〈 09년 1분기 세계 주요 타이어 업체별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유로, %)

업체명	08.1~3월	09.1~3월	증가율
한국타이어	587	669	14
아폴로타이어*	721	750	6
JK타이어	128	129	1
미쉐린	4,091	3,512	△14
피렐리*	1,056	927	△14
쿠파	497	418.4	△16
콘티넨탈	2,292	1,784	△22
스미토모	1,091	821	△24
브리지스톤	6,077	4,280	△29
굿이어	4,940	3,540	△29
노키안타이어	246	156	△37

\* 주 : 1. 피렐리사의 08.1분기 실적은 추정치임  
2. 아폴로타이어의 회계연도는 3.31일로 끝남

업체별로 살펴보면, 브리지스톤사의 09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60억 7,700만 유로에서 42억 8,000만 유로로 29.6% 감소하였으며, 수익 면에서도 크게 감소하여 9,310만 유로의 영업 손실과 2억 6,300만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동사에 따르면, 09년 2분기에도 판매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09년 상반기 실적은 약 90억 4,600만 유로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쉐린사는 금년 1분기에 그룹전체 실적으로 14.2% 감소한 35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타이어사업부의 매출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를 기록하였다. 타이어부문 매출의 이 같은 감소는 주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트럭용 타이어 시장에서의 신차용(OE) 및 교체용(RE) 타이어 판매와 승용차의 신차용 부문 판매에서의 상당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굿이어사의 매출은 08년 1분기 49억불에서 28.6% 감소한 3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익에 있어서도 전년 1분기 1억 4,700만불 순이익에서 금년 1분기에는 3억 3,300만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북미지역 타이어사업부의 매출은 08년 동기 19억불에서 18.9% 감소한 15억 4,000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1억 8,900만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콘티넨탈사는 09년 1분기에 그룹전체 연결재무제표 실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35.2% 감소한 43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타이어관련부문 사업부의 매출은 17억 8,400만 유로서 22% 감소하였으며, 이 같은 감소는 주요 판매시장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피넬리사는 그룹전체 연결 재무제표에서 전년 동기 11억 9,000유로에서 16% 감소한 1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순이익은 6,240만 유로에서 110만 유로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타이어 사업부문의 실적에서는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부문의 매출은 10% 감소한 6억 7,000만 유로를 기록하였고 트럭용 부문에서도 상당한 감소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주로 신차용 부문의 판매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쿠파사는 금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5.9% 감소한 5억 7,10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순익면에서는 169만불 순수익에서 크게 감소한 2,130만 손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북미타이어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1.8% 감소한 4억 3,900만 불의 매출과 400만불의 영업이익부문 손실을 기록하였다.

스미토모사는 전년 1분기 대비 24% 감소한 8억 2,1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노키안타이어사는 매출에서 36.8% 대폭 감소한 1억 5,560만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의 승용차용 교체용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지역의 자동차판매 위축에 따른 타이어 출하 감소에 따른 것이다.

09년 1분기 세계 타이어업계의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아폴로타이어, JK타이어사 등은 흑자를 이끌어 냈다. 한국타이어사의 매출은 전년 1분기 대비 5% 증가한 6억 6,900만 유로였으며,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원화기준 매출 증가율은 13.7%로 두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수요가 각각 20%와 9% 증가하였으며, 금년 연간 실적으로도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인도의 Kolkata에 본사를 두고 있는 JK사는 이익 면에서는 감소하였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한 1억 2,94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아폴로타이어사의 매출은 08년 1분기 7억 5,000만유로에서 6% 증가한 7억 2,10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09.5·6월 통합호, 미국「Modern Tire Dealer」09.6월호〉

## 2. 주요 업체 최근 단신

### 미·쉐·린

- 주요시장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설비투자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고 관리에 주력. 09년 설비투자 예산액은 약 9억 4,500만 불이며, 수요 감소와 제품 재고와의 균형을 위하여 공장 가동율을 상당부분 감소시켜 운영
- 지난 4월, 금년 10.31일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 미국 Alabama주 Opelika/Lee 카운티 BFGoodrich 공장, 폐쇄로 인한 동 지역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 브·리·지·스·톤

- 건설 및 광산업의 경기침체에 따라 지난 6.12일 미국 Illinois 주 Bloomington 산업용(OTR) 타이어 공장에서 91명 인원을 감축하고 7월 초 1주일간 동 공장의 가동을 중단
- 07년에 착공, 270백만불을 투자한 폴란드 북서부 Stargard 트럭·버스용 공장에서의 생산 시작. 동사의 두 번째 폴란드 공장으로, 2010년까지 일간 2,500개의 타이어 생산능력을 달성할 예정이며, 최대 일간 5,000개의 생산능력을 기대
- 07년 하반기에 2억 6,500만불을 투자하여 일본의 Kitakyushu 지역에 착공하였던 초대형 산업용(OTR)타이어 공장에서의 생산을 개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산업용타이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가동 시작

### 굿·이·어

- 수요 감소와 생산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프랑스 Amiens 공장에서의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제조를 2010년 3분기까지 중단할 계획
- 금년에 미국 Union City(Tennessee주)와 Akron(Ohio 주) 지역 공장에서의 매각 조치 등을 통하여 고위간부를 포함한 약 700명의 인원 감축 계획
- 수출시장 악화로 금년 9월까지 필리핀 Las Pinas 타이어공장을 폐쇄할 계획

### 피·렐·리

- 유럽지역 고용인원 1,500명 감축 전략의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스페인 Manresa 지역의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
- 지난해 브라질 시장으로의 1억불 투자에 부가적으로 추진된 조치로, 2011년까지 2억불을 투자하여 브라질에서 승용차용과 오토바이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20%까지 확대할 계획

### 스·미·토·모

- 유럽 교체용타이어 시장에서의 동사 Falken과 Ohtsu 브랜드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독일의 Offenbach에 타이어 판매회사인 Falken Tyre Europe GmbH를 설립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09.6.1, 7.13, 7.27 「Tire Business」,09.6.22, 7.6, 7.20일자) K